

### “매일 금강경 읽고 참선해 佛法 실천을”

불교인재원, <금강경> 공부결사 진행... 3월 27일 입재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성호)이 재가자의 공부 열기 확산을 위해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 공부결사를 추진한다.

불교인재원은 2월 24일 서울 인사동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가자들이 <금강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부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강경> 공부결사는 입재와 동시에 스매일 <금강경>읽기 스매일 5분 참선 스매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일하기 등 청규를 정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공부결사는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지하 선운당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에 진행된다.

<금강경>공부를 진행할 강사는 김응철 불교인재원 원장(중앙승가대 교수), 박윤훈 전 환경부장관,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 이연오 바른경영연구소장, 우명규 전 서

울시장, 우승택 전 삼성증권 특별고객지점장, 박희승 한국문화연구원 교수 등 재가불자로 제방에서 활약하면서도 불교공부와 활동을 많이 해온 교수진들이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엄성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이번 공부결사에 스님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재가자들 스스로 탐마 하자는 차원에서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재원은 그동안 백련불교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강좌도 8기를 모집한다.

백일법문 강좌는 3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법회관 지하 선운당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에 열린다. 중도사상, 근본불교사상, 대승경론의 중도, 천태종의 중도 사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1661-1108 **이어나는 기자**

## “영어로 배우니 더 쉽게 와 닿아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가르침 첫 정기 영어법회 열어

“Every movement and function of your body is ultimately being done by your fundamental mind...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내 근본이 하는 겁니다.)”

2월 26일 저녁 7시 30분 안양 한마음선원 2층 법당. 한마음국제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미국 출신 청고 스님의 영어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청고 스님이 슬라이드로 준비한 영문으로 번역된 대행 스님의 법문을 읽고 이와 관련된 예를 설명하는 청고 스님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대행 스님은 ‘이 모든 오장육부의 소임을 맡고 있는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 내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는 거다. 선장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응(應)해 주면서 밀고 나가게 하는 그 천차만별의 의식에 힘을 주는 마음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예를 들어볼까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신체 조건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집중해 스케이팅 연습을 하다 보니 점점 피겨스케이팅에 적합한 신체 구조가 된 것입니다. 대행 스님은 유전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유전을 받았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이날 법회에서 청고 스님은 한마음국제문화원에서 발간한 <생활 속의 참선수행·한영합본>시리즈 가운데 8권인 ‘In the Heart of a moment(일체를 움직이는 그



‘분별심’ ‘주인공’ ‘업(業)’ 등 불교용어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 청고 스님(사진 왼쪽). 청고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불자들(사진 오른쪽)

대행 스님 <생활 속 참선수행> 교재로 한마음국제문화원 청고 스님 지도 매월 넷째 주 목요일 7시 30분 진행

‘분별심’ ‘주인공’ ‘업(業)’ 등 불교용어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 청고 스님(사진 왼쪽). 청고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불자들(사진 오른쪽)

호텔 측 실수로 휴연이 가능한 방을 줬던군요. 그럴 때 분별심을 내어 불쾌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프론트에 가서 정중히 이야기 했죠. 호텔측은 처음에 예약했던 방이 없다며 더 크고 좋은 방을 줬습니다. 어때요, 처음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처음 휴연실을 받았을 때의 기분과 기억은 싹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근본에 맡기면 마음의 차원은 높아지고 과거의 좋지 않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자꾸 연습하셔야 합니다.”

대행 스님은 법문에서 항상 ‘주인공’ ‘밀고 맡기고 관하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내면의 참나를 찾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실제 수행으로 실천하라고 하면 잘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다. 불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서준(44·남) 씨는 “불교를 배우다 보면 단어가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마



음공부, 불교와 관련된 용어를 영어로 배우니 단어 자체의 관념적 틀에서 벗어나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손형우(50·남) 씨는 “한국말로로는 어렵게만 받아들여지던 표현들을 객관적인 영어 표현으로 배우니 분명하게 이해했다.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전세계에 알리는 청고 스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고 스님의 영어 법문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안양 한마음선원 2층 법당에서 진행된다. 스님은 “취직, 결혼, 인간관계 등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시급한 문제들만 생각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마음을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황에 불만족스러워하기 보다는 잘 되게끔 내면에 놓고 관해야 한다”며 “대행 스님은 이런 내용을 항상 강조하셨고, 그것을 영어로 좀 더 쉽게 말해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불심 키워 민생치안에 이바지 하자”

경찰전법단 2월 24일 경찰법요집 봉정법회 및 신년법회

‘경찰법요집’이 발간돼 경찰불자들이 통일된 의식으로 법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경찰법요집 봉정법회 및 경찰불자 신년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경찰전법단장 원명 스님(조계사 주지), 구은수 서울청장을 비롯해 경찰 불자와 가족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경찰법요집 봉정식과 점안식, 고불문 낭독, 내외빈 소개,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다.

경찰전법단은 지난 2013년 전 단장이었던 도문 스님(전 조계사 주지)의 발원으로 원명 스님과 서울청경승실장 원학 스님(봉은사 주지)의 후원을 받아 경찰법요집을 만들었다.

포교원과 경찰전법단은 경찰법요집 1만2천부를 포교원, 지방청 및 산하 경찰서



와 경찰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전법단장 원명 스님은 “각 청이나 경찰서에서 열리는 법회를 통일된 의식으로 진행하고 불자의 예절이나 기본 교리를 가르쳐 경찰 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회와 국가 민생치안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나는 기자**

## 자비의 전화, “새 등지 개운학사서 원년 도약”

2월 23일 정기총회서 사업보고 및 신년계획 발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부설 자비의전화는 2월 23일 조계사교육관 2층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작년 사업보고 및 신년 사업계획과 새 임원 선출을 발표했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자비의전화는 불교상담을 대표하는 중앙기구로 역할 전환을 모색하고 전문영역개척과 불교상담의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지난 해 불교상담의 대중화를 위해 교육관 불사 기금 마련을 해온 불교상담개발원은 오는 5~6월경 중앙승가대 내 개운학사 사무실을 옮기며 불교상담 대중화 기여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총회에서 도현 스님은 “오는 6월께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개운학사에 새 등지를 틀고 올해 다양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불교명상상담 지도자 육성·선발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수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상담개발원이 대학원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의 전화는 불교상담 이론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불교상담심리사 선발 및 관리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기존 불교상담심리사 1·2급 자격기준을 완화 개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부설 자비의전화는 2월 23일 조계사교육관 2층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작년 사업보고 및 신년 사업계획과 새 임원 선출을 발표했다.

표하고 “상담원활동 전문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해 불교상담의 전문 영역을 개척해 전문화를 도모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2014년 사업보고에서는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은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 청소년 사이버 상담 ‘아하섹스’와 전문면접상담은 각각 525건에서 768건, 202건에서 301건으로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새 신입임사로 부명 스님(몽운사 주지), 헤타 스님(한국명상치료학회 연구위원), 답소 스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학 석사), 이운(나란다 대안학교 명사 및 인성, 집단상담 교사)을 선임했다.

**이어나는 기자**

### 포교사단, 제2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 연다

3월 8일 오후 1시 30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포교사단(단장 광명희)은 3월 8일 오후 1시 30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불교문화공연장에서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 포교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정된 ‘포교사의 날’ 두 번째 행사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단 대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포교사단 대의원 총회 △개회

선원 △포교사의 노래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교사단은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총재상, 단장상을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총 63팀에 수여한다.

포교사단은 “이번 기념법회를 통해 포교사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일체감을 조성해 재가지도자의 위상을 확립하고 포교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나는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3월 中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탐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속**

##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옥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시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